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삼상 01:26-28절)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입니다. B.C. 1000 - 950년 사이에 사무엘의 깊은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의 세 명의 영웅들의 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영웅으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

사무엘상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 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출생배경과 성장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교훈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의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에게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녀는 "여호와께 구하였다"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땔 나이가 되자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젖을 땔 무렵인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를 '기도하는 어머니' 로 경건한 여인의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언제나 첫 자리에 두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었고 서약을 지켰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젖을 땔 무렵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일평생을 살아가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은 일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일평생을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도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기도'를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것을 강권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삼상7:5-6)"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렇듯 사무엘은 기도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고 실 수 없는 성공적인 신앙인생을 살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저술되고 출판된 책이며,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밝혀서 누가 지은 책인지도 모르면서 기독교 역사상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고(寶庫)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실한 성경 연구가 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흥이 더디 옴을 이상히 여긴다.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한가지 기도의 결핍뿐이다. 모든 부흥은 기도의 결과다"

"만일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중의 가장 큰 후회는 이 땅에 살 동안 진실한 기도를 너무 적게 했다는 점일 것이다"

"하나님의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는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일과, 복을 내 것으로 찾아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2:8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무엘처럼 기도로 평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울 - 처음과 나중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늙으매 백성들이 왕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출발은 매우 좋았으나 나중은 매우 좋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용맹스러운 지도자로서 출발했던 사울왕은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인간적인 결점과 연약성을 드러냅니다.

13장에서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앞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왕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함의 사건!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으나 자신을 위해 전리품중 가장 좋은 것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각왕을 죽이지 못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사울을 더욱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그의 왕국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아들도 죽고 쫓기던 사울은 자신의 칼에 앞드려짐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보면서 처음과 나중이 너무도 비교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출발은 화려했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이 많이 등장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출발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 나는 신세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자행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끝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나실인으로 출발을 하지만, 나중은 데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자신을 묶었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건물에 깔려 함께 죽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화려한 신앙의 출발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팔아먹고 자신은 자괴감에 빠져 자살을 하는데 창자가 터져 나올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일하던 데라는 처음에는 일꾼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은 좋으나 나중이 좋지 못한 경우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일평생 믿음이 변질되지 맙시다!

출발보다 마지막 인생의 끝이 더욱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복된 인생이 됩시다!

다윗 -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인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이후에 다윗은 지혜와 용기가 출중해져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도자로 부각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왕의 핍박을 심하게 받았지만 겸손과 관용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은 블레셋 거인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거의 맨주먹이나 다름이 없는 물매돌 다섯 개를 들고 나갑니다. 상대방 골리앗은 머리에는 놋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찢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습니다. 그가 들은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 베를 채 갈았습니다. 방패를 든 사람을 따로 앞에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소년 다윗을 보자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나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5-47)"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성경에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 하심을 100%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진 믿음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은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당시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자네 중국이란 나라를 한 동네쯤으로 생각하나? 그 나라는 끝도 없는 대륙일세.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어둡고, 완고한 대륙일세. 자네 대관절 선교비가 얼마나 있길래 그곳에 갈려고 하나?" 하고 묻자 그 때 허드슨 테일러의 주머니에는 50불(40,000원정도)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50불 가지고 무얼 한다고...그만 포기하게." 하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 테일러 하는 말이 "아 자네는 왜 내 주머니에 있는 50불만 보는가? 나는 50+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네. 50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하고 가니 걱정하지 말게!"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세계적인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교회부지를 구입할 때는 그 땅이 불모지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고 모래바람만이 무성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수십 년을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규모를 볼 때도 세계적인 교회를 지을 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너무 돈에 시달려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에게 변함 없이 함께 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끝내는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나 인생의 꿈을 꿀 때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훗날 크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